

光山金氏良簡公派譜 卷之首 上

序

무한한 光陰이 흐르는 동안 人類의 文明이 발달되고 文化가 발전하여 各 氏族마다

전통과 열이 담긴 文物이 創造되니 우리 나라의 族譜제도도 그 중의 하나로서 우리

社會生活에 있어 크나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제도가 創始된 이래로 氏族은 氏

族대로 宗派는 宗派대로 그 나름의 族譜가 있어 各기 그 使命을 다하고 있는 이때

우리 金氏는 瑞石譜를 비롯하여 歷代에 걸친 大同譜가 五、六次 刊行 되었으나 오직

우리 良簡公派만은 六、七百年이 지나오는 동안 미처 派譜를 編修하지 못하여 分派는 더

욱 繁衍하고 文獻은 점점 踈略하여 갈수록 더욱 劇甚할 것을 염려한지 오래더니 다

행히 己未(一九七九)년 孟冬에 뜻을 같이한 各派의 代表者 會議에서 徇議歸一하여 이

계 氏族的 宿願事業을 成就하게 되니 이는 오로지 諸宗들의 尊先裕後하는 血誠에 대

하여 先祖의 尊靈께서 冥冥한 가운데서 감싸주시고 도와주신 음덕일 것이다 비록 時

期的 늦은 感은 있으나 진실로 우리 金氏의 氏族史上 劃期的인 盛事요 未曾有的 偉

舉라고 아니 할수 없는 바이다

本譜 創刊의 意義는 永遠한 歷史속에서 氏族史觀을 定立하고 宗族의 構成體制를 確

立하므로써 良簡公의 尊靈에게 후손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였음에 대하여 贖罪의 기

회를 마련하는 한편 同族의 歷史的 現實自覺을 드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더우기 오

늘날 現時點을 살피어 보면 우리 金氏全宗에서 良簡公派가 過半이상의 數를 차지하고

있다하니 참으로 이른바 螽斯詭詭한 것이다 이 더욱 變창하여 가는 子孫들이 中外四

方으로 離散할 뿐아니라 六、二五動亂으로 因한 民族的 大受難과 氏族的混雜이 軌道를

같이하여 宗族의 生死存歿조차 알 수 없는 現實情이요 또 物質文明의 革新發展하는 過程과 함께 激變하는 世界史的 大勢의 흐름은 潮流앞에서 未來의 對應策이 절실히요 淸되는 現實에 즈음하여 祖先을 崇奉追報하고 宗族을 收合敦睦하여 宗親觀 倫理觀을 再定立하는 것이 또한 意義가 至重且大하다고 하겠고 나아가서는 世敎의 一助가 되리라 고 믿는다

무릇 族譜란 것은 民族史를 細分化한 한 氏族의 血統史로서 綿綿히 代를 繼承하여 縱으로는 世系와 先祖의 根源을 밝히고 橫으로는 遠近의 宗族系列을 體系化한 貴重의 文獻이니만치 同族의 與否와 및 昭穆의 序列 派系의 分別등에 지극히 必要한 寶鑑이다 그러나 이것이 한갓 文獻만에 그치지 않고 先祖의 崇慕 宗族의 敦睦과 子孫의 繼承에 대한 基本目的이 된다는데 그 眞意가 있다는 것을 否認할 수 없다 저이기 생 각하건대 우리 金氏가 新羅初에 得姓한 이후로 三代國朝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동안 歷年二千載의 悠久한 세월속에서 列先祖께서는 父傳子襲하고 祖繼孫承하여 道德文章과 忠孝節義등 偉勳懿蹟으로써 빛나는 氏族史를 創造하셨고 나아가서는 民族發展과 世敎扶持에 크게 貢獻하셨음이 國乘에 燦然하여 우리는 예로부터 名門巨族임을 自負하는 矜持와 榮光을 누리고 있다 이는 다 列先祖의 潛光毓德하시고 積善累仁하신 餘蔭의 厚報가 아님이 없음을 恒時 銘心刻骨하여 永久不忘할 것이며 世德傳統을 根幹으로 한 實事求是만이 先祖를 욕되게 앎고 宗族을 敦睦하고 子孫을 啓迪하는데 있어 萬世의 指針이 될 것이다

아! 分派 六百여년만에 이 大派譜를 創刊함에 있어 派系의 詳考와 昭穆의 叙序는 歷代大譜를 비롯하여 各小派譜에 이르기까지의 世乘을 廣範圍하게 精密히 考究하여 慎重을

期하였고 世德編을 大幅裒輯한 것은 先世의 昭人耳目한 奕世圭組와 懿德行蹟을 追慕觀感
 하고 나아가서 創意性を 發揮하여 氏族의 無窮한 暢達과 國家民族에 貢獻하는 참다운
 世德傳統을 본받으려 함이다 이제 約四個星霜의 攄임 없는 積功으로 譜役의 竣功을
 보게 되니 欣喜不已함 보다도 感慨無量한 中 在南宗族의 若干의 缺漏와 在北諸族의
 勢不得已한 全體漏譜는 甚히 遺憾되는 일이거나 多시 돌이켜 살피건대 其麗不億의
 우리 後孫으로서 守護의 不謹으로 良簡公의 瑩城을 失傳하여 歲一香火를 闕하게 되니
 奉先하는 情禮의 缺如됨이 이 위에 더할 수 없다 이른바 名門의 후예로 崇祖追慕하
 는 誠意가 있다면 어찌 이 修譜만으로 卞 일을 마쳤다 하여 自滿自足할 수 있으랴?
 修譜의 窮極目的은 앞서 累累히 強調한 바와 같이 崇祖敦族에 있을 뿐이니 尊祖에는
 不敬 不仁 不明하면서 敦族에만 치우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
 므로 祖上崇慕에 대한 概念認識과 族譜에 대한 價値觀이 점점 變貌되어 이에 대한
 根本精神을 忘却하여 가는 現時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使命感을 猛省한 覺悟로 卞
 報本反始하는 契機가 되어 良簡公 貞景公 兩代先祖의 祭壇을 奉設하여 永久히 設享하
 기를 바라 마지 않는 바이다 昇洙는 본디 才薄識淺한 資質로서 외람히 重責을 맡아
 서 微力이나마 성의껏 始終傾注 하였으나 事鉅力綿하고 혹시 過誤가 있을까 하여 念
 念在茲로 悚懼한 마음을 禁치 못하면서 創譜의 由來와 相互戒勉할 바를 감히 卷端에
 略述하고 不肖後孫들의 正성으로 이루어진 이 譜冊을 列先祖의 靈前에 삼가 바치며
 尊靈의 永寧하심과 아울러 永久히 庇護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祈願하는 바이다
 檀紀四千三百十六年 癸亥(一九八三)冬至日
 後孫 昇洙 謹序

舊譜序 (丙子一八七六)

粵我先之以金爲氏自漢永平八年肇王於新羅羅之季 王子遜于光山而仍以貫式至今爲望蓋數千禩矣有
 姓則有族有族則有譜我譜之始未詳自何而今不可攷入 本朝來昂雲仍世益熾昌一本而百其枝一枝而千
 其葉自同室而異宮異宮而散在四方戚單于下駸駸然若楚之越或過於塗則塗人耳塗亦不遇則反不若塗之
 人遂至於日疎而日忘斯豈亶忘其族也乃亦忘其本也蘇明允譜其族而引之曰幸其不至於塗人使其無至於
 忽忘欲不忘乎則覽輒油然而感者其惟所自出之譜也舊有兩譜世遠而多缺漏光城府院君瑞石公篤於族就
 是譜而是正差謬後丁卯公從姪知樞公又述世德而增補之伊來百三十年所更未之續京鄉宗哲咸以是憂謀
 所以丕修之一以丁卯譜爲準曰分編曰追編曰別編皆繇新羅 王子始母曰其胄遙遙其祚悠悠自吾祖 王
 子公視之均是孫耳 勗哉我同譜之冠若童祗奉此譜常如設黍之爲溯源而莫遠且邇吾先祖亦將有穀而世
 世詒之

崇禎後五丙子仲夏後孫崇政大行吏曹判書兼判義禁府事知 經筵春秋館事弘文館提學同知成均
 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 經筵日講官 在顯 謹書

우리 先祖의 氏를 金으로 한것은 漢나라 永平八年에 비로소 新羅의 王이 되므로
 부터 始作된 것인데 新羅末에 王子께서 光山縣에 살으셨으므로 貫을 삼아 至今에 望
 族이 되니 數千年이다 姓이 있으면 일가가 있고 일가가 있으면 族譜가 있어야 하
 니 우리 族譜의 始作은 어느때부터인지 지금 상고할 수 없으나 朝鮮朝에 들어와 子
 孫이 대대로 더욱 번창하여 한 나무로 그 가지가 百이 되고 한 가지에 그 잎이
 千이나 되는 것처럼 同室에서 異宮으로 異宮에서 四方으로 흩어져 살게 되니 戚
 單이 오래 되매 희미하여 楚나라 사람이 越나라 사람 보듯하고 후 길에서 만나면
 길 가는 사람 같이 여기고 길에서도 만나지 못하면 길가는 사람만도 못하게 되어

날로 멀어지고 날로 잇어 버리게 되니 이 어찌 다만 그 宗族만 잇음이라도 이에
 또한 그 근본조차 잇어 버리게 된다 蘇明允이 그 族譜序文에 이르기를 다행이 길
 가는 사람같이 여기지 말고 疎忽하게 잇어 버리지 말라 하니 잇어 버리지 않으려면
 보고 문득 감동할 수 잇는 것은 오직 系統을 밝힌 族譜뿐이다 옛적에 두차례 즉
 보가 잇었으나 世代가 멀고 缺漏됨이 많았으므로 光城府院君 瑞石公이 이 族譜의 그
 름된 점을 是正하였고 그뒤 丁卯年에 公의 從姪 知樞公이 또 世德을 기록하여 增
 補하였으나 벌써 百三十年이 지냈으되 다시 續譜하지 못하였으니 京鄉宗族이 이 일
 을 걱정하여 修譜할 의논을 정하고 丁卯譜를 表準하여 分編 追編 別編으로 나누었
 으나 모두 다 新羅王子로 부터 비롯 되었으니 系統이 멀고 해가 오래 되었다고 말
 어라 우리 할아버지 王子公이 보신다면 모두 다 子孫이니 힘쓸지어다 우리 同譜한
 冠과 童은 正성으로 이 族譜 받들기를 항상 제사 받드는것 같이 하고 근원을 찾
 아 멀리 하지 말고 다 같이 가깝게 여기면 우리 先祖 또한 녹을 갓아 世世로 내리시리라

舊譜序 丁巳(一六七七)

惟我金氏族譜宗人之居嶺南者暨我出郡守宋熙業氏併有編纂而閱歷年歲既久支派之日滋行者未之續編
 闕漏放失殆不可攷余爲是懼就兩譜是正差謬增修其未續編者而其夾註事實之或備或畧同宗外裔之別也
 尤詳本派譜自我作故也外裔雖至十百世皆爲我出而聞見精力之有不能周及而遍舉也則無寧約而精也而
 兩譜三世之限又無所執据故今從喪服所暨限以女子之子此吾新譜凡例也古人之纂譜牒莫不以敦親睦廣
 仁恩爲務今吾宗人所當勉焉者亦惟在斯而余於是尤有所深感焉昔方遜志希直纂次宗儀以諗其宗人歷稱
 其曾大父西洲府君之純厚慤大先君太守貞惠公之廉介方正以爲後孫之準則其言勤摯懇到有足以感發人
 心者洪惟我金氏世種德襲美若始祖 王子之先幾高蹈保身貽後固不可尚已厥若來或以文章節義或以事

業勲闕赫烏無替而至于我曾大夫文元公及厥嗣文敬公以道學經術爲世宗師及門之士有能稱述而闡揚者矣小子何敢容喙焉噫凡我後孫簪組衿紳不淪胥爲興僮者何莫非祖先覆露庇燾之餘也惟當啓居食息毋忘我祖先矧斯譜也祖先之名諱稱號暨厥生卒爵位開卷在目爲後孫者其可不瞻對興懷思所以無忝我祖先也哉若或持身不遜悌執事不恪勤安於傲肆狃於卑汚不免乎僇人賤行則其貽辱祖先也大矣詩曰無忝爾祖聿修厥德余於世譜之成重以是自勗焉

歲在丁巳仲秋

後孫 萬基 謹書

우리 金氏族譜는 嶺南에 사는 宗人이 내가 郡守로 나갔을 적에 宋熙業氏와 함께 編纂하였더니 해가 지난지 오래되고 支派가 날로 불어나되 續編하지 못하고 빠지고 유실되어 자못 상고하지 못하게 되니 내가 이 일을 근심하여 예전 兩譜를 근거로 하되 그릇된 것을 是正하고 續編하지 못한 것을 增修하여 그 옆 註에 事實을 或完備하고 或 간략하게 함은 同宗과 外裔를 分別함이요 本派는 더 자상하게 하였으니 族譜를 내가 지은 때문이다 外裔는 비록 十百世에 이를지라도 다 우리로부터 나갔고 聞見하는 精力이 두루 列舉하지 못할지니 차라리 간략하고 精密하게 할지라 兩譜에 三世로 限定하였으나 執據할 수 없는지라 이제 喪服親을 좃아 女子의 아들까지 限定했으니 우리 새 族譜의 凡例다 옛 사람이 譜牒을 編纂하매 親睦을 두텁게 하고 仁恩을 넓히는 것을 힘썼나니 우리 宗人들도 마땅히 힘 쓸지어다 내 여기에 더 욱 느낌이 있으니 옛적에 方遜志 希直이 宗儀를 편찬 할적에 그 宗人에게 말하되 그 曾大夫 西洲府君의 純厚하고 正성스러움과 先君 太守 貞惠公의 淸렴하고 方正함이 後孫의 準則이 되리라 하니 그 말이 극진하고 간절하여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도다 오직 우리 金氏는 대대로 美德을 전하니 始祖 王子公 같은 분은 먼저 기미를

알고 피란하여 몸을 안보하고 後孫에게 끼쳐주시니 그 德은 더 높을 수 없도다
그 뒤를 이어 或 文章과 節義로 或 事業과 勲閥로 빛나더니 우리 曾大夫 文元公
과 王大夫 文敬公이 道學과 經術로 세상의 宗師 되시니 그 門下에 모인 선비들이
稱述하고 闡揚할 분이 많으니 小子 어찌 敢히 덧붙여 말하리오 아마 우리 後孫이
簪組襟紳으로 몰락하여 賤人이 되지 아니함은 모두 다 祖先의 음덕이니 오직 편히
살고 편히 먹는다하여 우리 祖先을 잊지 말지어다 이 族譜는 祖先의 名諱와 稱號
와 生卒月日과 爵位가 책을 펴면 나타나니 後孫된 자 보고 對하매 생각을 일으켜
祖先에 욕됨이 없게 하라 만일 몸가짐이 공손하지 못하며 일을 잡음에 부지런 하지
못하고 방탕한 것을 편안히 여기고 卑汚한 것을 익혀 賤人의 行動을 免치 못한다
면 祖先에 辱을 끼침이 크리라 詩傳에 이르기를 네의 先祖에게 욕되게 하지 말고
德을 닦으라 하였으니 내 世譜 이루어 짐에 거듭 스스로 경계하노라

光山金氏良簡公派譜卷之一

一世 二世

金興光 廣 弘

新羅國金氏의王子 羅國末에 태어나 나 라가 어 지 러 우 매 遷 世 하여 武州 西 一 洞 에 寓居 하니 이 곳이 곧 後에 光州 平章 洞 이며 光山 金氏 가 이 에서 비 똥 이 었 고 子 孫 이 連 이 어 八 代 平 章 事 를 지 냈 으 니 後 世 가 람 들 이 이 곳을 平章 洞 이라 일컫 게 되었다 ○ 삼 가 살 터 보 진 대 王 子 公 의 諱 는 興 光 이 니 聖 德 王 의 諱 字 와 同 이 하 며 忠 貞 公 義 元 의 墓 誌 에 亂 世 를 避 하 여 이 곳에 터 를 잡 아 살 기 始 作 하 였 다 고 쓰 여 있고 또 한 信 字 부 터 그 림 대 는 舊 俗 에 族 諱 가 없 으 니 모 두 失 名 하 였 다 고 기록 되 어 있 으 니 王 子 公 도 아 울 러 失 名 하 였 음 이 分 明 하 고 모 두 라는 表 現 으 로 미 루 어 단 지 一 · 二 代 만 이 失 名 된 것 이 아 님 을 짐작 할 수 있 다 그 러 나 후 은 神 武 王 子 라 고 도 하 고 憲 康 王 子 라 고 도 하 는 데 모 두

軾 식

角千이니 곧 平章의 秩이다 ○ 삼 가 舊 譜 를 살 펴 보 면 王 子 公 의 子 는 軾 이 요 軾 의 子 는 佶 로 되 어 있 으 나 忠 貞 公 의 墓 誌 에 佶 로 부 터 以 上 은 모 두 失 名 하 였 다 하 였 으 니 그 모 두 라는 뜻 은 단 지 一 · 二 代 만 이 失 名 된 것 이 아 님 을 짐작 할 수 있 다 그 러 나 다 만 世 代 가 玄 遠 하 고 文 獻 이 無 微 하 니 己 卯 長 城 大 同 諱 에 準 하 여 軾 再 信 字 分 의 諱 字 上 에 子 字 를 쓰 지 않 고 世 數 만 을 쓰 고 佶 字 는 새 로 起 層 하 여 삼 가 後 日 의 考 證 을 기 다 린 다

五世

六世

七世

八世

九世

光山金氏良簡公派譜 卷之一

다證據할바가 없고
또한史乘年代의誌
文事實等이一致의
지암으로敢히某
王의아들이라하지
는吳하고黃臺典誥
珥의題詠詩序와前
譜에記録된바에依
據記録하고後日의
正確한考證을기다
리기로한다○遺墟
에碑를세우나後孫
鎮商이陰記를지었
고會豐이銘을지었
으며全南潭陽郡大田面平章里(舊光州平
章洞)七六番地山
에設壇하고每年陰曆十月一日에享祀한다

三世

信 諱

三重大臣司空이나
高麗太祖統合時에
奇偉之策으로王業
을도와이욱하여功
臣의稱號를받았다
○信은舊譜에古字
로되어있으나忠貞
公墓誌에依하여고
쳐기록했다○삼가
살펴보면대忠貞公
墓誌에信字로부터
以上은모두失名하
였다하였으므로王
子公以下에系書하
지 못하고삼가後日
의確證을기다린다

四世

子峻 諱

○峻은舊譜에順字
였으나忠貞公墓誌
文에依하여고쳐기
록했다

五世

子策 諱

光宗十五年甲子(九
六四)二月에趙翌을
上試官으로하여翌은
科場에서登第하매
임금이天德殿에나가
御賜宴을배풀고特히
儀鳳門을열어말을타
고나가도복命하였다
後에左僕射와翰林學
士를거쳐平章事에이
르렀고諡號는文貞公
이다

六世

子廷俊 諱

靖宗元年乙亥에殿中
侍御史요六年庚辰에
承宣이며 文宗三年
己丑에御事臺事요七
年癸巳에叅知政事며
九年乙未에內史侍郎
平章事로守司徒門下
侍郎平章事에이르렀
다○廷은舊譜에貞字
였으나忠貞公墓誌文
에依하여고쳐기록했
다

七世

子良鑑 諱

文宗五年辛卯에文科
에급제하여庚戌에尚
書右丞이되였으며辛
亥에御史臺事가되였
고壬子에太僕卿이되
어宋나라에使臣으로
갔다甲寅에太廟의
大學의圖表를撰寫하
여들어왔다十二月에
散騎常侍가되었고丁巳
에中樞院事며戊午에
宋나라使臣이올때戶
部尚書의職分으로接
伴使가되였고辛酉에
叅知政事와判尚書兵
部事로西京留守使柱
國을兼하고癸卯에中
書侍郎平章事로時政
의得失을陳奏하였으
며 宣宗三年丙寅에
門下侍郎平章事로다

八世

子若温 諱

舊名은義文이요字는
柔勝이며 高麗文宗
己亥에生하고文科에
올라 仁宗元년에平
章事檢校司徒와守司
空上柱國을기냈고己
未에守太傅門下侍中
判戶部事로致仕하여
庚戌二月壬戌日에卒
하니壽는八十二요諡
號는思靖公이다公의
性稟이恭儉하고廉正
하여일찌기富貴로남
에게驕態를보이지않
았으나事實이麗史列
傳에있다○舊譜에公
의兄弟序次가相違되
여忠貞公墓誌에依하
여訂正하였다

九世

子璇 諱

兵部侍郎이다○살펴
보면丁卯譜十七卷下
別編에曰舊譜에侍郎
璇の子孫이記録된바
없으나世代가差違하
고文獻이無徵한故로
此編에記録하여後日
을기다린다하였고高
麗忠惠王時에官이戶
部侍郎이더니某種의
事由로三和에謫居하
매子孫이仍居한다하
였다
婿尹彦願
坡平人이나政堂文學
이요諡는文簡公이며
子는侍中麟瞻 博士
固 侍中敦信 舍人
讓 敦義 禪師 孝敦